



주일설교 말씀나눔지

2023. 2. 19

「마가복음 마흔다섯 번째 말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God who never forgets me

마가복음 12장 35-44절

-
35.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36.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37.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38.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39.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0.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41.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

1.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마1:1). 서기관들은 그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고귀한 인간 혈통의 자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왕의 ‘재생산’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35)” 물으시며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는 것을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불렀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단순한 왕의 혈통이 아니라 ‘다른 권위’가 있음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암시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각자가 느낀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2.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Lord)’라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라’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개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심을 느낄 때 살 떨리는 전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의 주인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느낄 때가 있다면 그 경험을 나눠봅시다. 또한, 아직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사모하는 마음을 나눠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Central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Kansas